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수행평가 과제인 ‘생활 속 기호 찾기’ 중 ‘도로 표지판’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로에는 도로의 종류, 속도 제한, 주의 사항 등을 알려주는 다양한 종류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표지판을 보며, 표지판의 모양과 번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료 1을 보여주며) 첫 번째 자료는 고속도로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란 주요 도시와 거점 지역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방패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중앙에 적힌 번호에는 고속도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홀수는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짝수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는 국토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서로 연결된 고속도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큰 번호가 부여됩니다. 자료처럼 60번인 서울양양고속도로와 10번인 남해고속도로는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동서로 연결되어 있고, 번호가 더 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남해고속도로보다 더 위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를 보여주며) 두 번째로 보여 드리는 표지판은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국도를 가리킵니다. 일반국도란 전국의 주요 도시와 공항,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번호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홀수는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를, 짝수는 동서로 연결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국도 중 자료처럼 한 자리 번호가 적힌 경우는 두 자리 이상의 번호가 부여된 일반국도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료 3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는 직사각형 모양의 표지판은 지방도를 가리킵니다. 지방도는 도내의 시·군청 소재지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로, 앞의 두 도로와 달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지방도의 번호 중 백의 자리와 천의 자리 숫자는 각 도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요, 자료처럼 백의 자리가 3인 경우는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4××는 강원도, 5××는 충청남도, 8××는 전라남도, 10××는 경상남도를 의미하며, 뒷자리의 ××는 앞서 언급한 도로들처럼 홀수는 남북 방향을, 짝수는 동서 방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도로 표지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차를 타고 가다 도로 표지판을 보면 어떤 종류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중간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역사적 유래와 가치를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발표에서 언급된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가)~(다)의 표지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가 가리키는 도로는 남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군.
- ② (나)가 가리키는 도로는 두 자리 번호가 적힌 같은 종류의 도로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군.
- ③ (다)가 가리키는 도로는 경상남도 내의 시·군청 소재지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들 중 하나이겠군.
- ④ (나)가 가리키는 도로는 (가)와 (다)가 가리키는 도로와는 달리 동서로 연결되어 있겠군.
- ⑤ (다)가 가리키는 도로는 (가)와 (나)가 가리키는 도로와는 달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겠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얼마 전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이 나. 도로를 지날 때마다 번호들이 적혀 있는 방패 모양, 타원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표지판들을 보았는데, 발표를 듣고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가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삼각형과 육각형 모양의 표지판도 본 것 같은데, 그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겠어.

- ① 발표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발표자의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② 발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발표 태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고 난 후 생긴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4 ~ 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후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온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쓴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오늘은 ‘행복 나눔 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의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 시장: 안녕하세요.

진행자: ㉠ 시청자 분들께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 시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고품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환경오염을 심화시켜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사진 1 화면) 보시다시피 주변에 버려진 전자제품과 가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행복 나눔 장터 덕분에 지금은 중고품의 재활용이 증가하여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행복 나눔 장터가 주말마다 열린다고 들었는데, ㉡ 장터의 모습을 잠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시 시장: (동영상 화면) 지난 주말의 장터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행복 나눔 장터를 찾았습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행복 나눔 장터의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하네요. 시장님, ㉢ 올해는 운영 면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시 시장: 지난해까지는 나눔 마당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은 중고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중고품을 교환하는 행사에 치중했습니다. (사진 2 화면) 하지만 올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속 마당을 새롭게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참외, 버섯 등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3 화면) 뿐만 아니라 행사장 가장자리에 체험 마당도 마련하여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나눔 마당, 실속 마당, 체험 마당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시 시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 시장: 행복 나눔 장터를 열던 첫해에는 시민들의 관심도 적었고, 기증 받은 중고품도 많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행사 진행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여 무척 힘들었죠.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님, ㉣ 기증 받은 중고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행사장에 가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중고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 시장: (표 화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가전제품, 학용품, 옷, 신발, 완구 등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은 중고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배부한 후 그 순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물품 선택은 한 세대당 하나만 가능하죠.

진행자: 그렇군요. 시장님,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죠?

△△시 시장: 시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민운동장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시민운동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시민들이 중고품을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 시장: (사진 4 화면) △△시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증할 물품과 기증자의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기증자가 원하는 날짜에 수거할 것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시 시장: 행복 나눔 장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과 지역 농산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행복 나눔 장터를 방문해 주세요.

진행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학생의 초고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김○○입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에도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고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 장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온 후 우리 학교에도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눔 장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환경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의 종류와 그 처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는 학용품을 비롯하여 참고서, 책, 가방, 자전거, 전자시계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쓸 만한 것들이지만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잘 몰라 그냥 버리거나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고품 나눔 장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자'는 '△△시 시장'에게 인터뷰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시 시장'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시 시장'은 '진행자'의 질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 ⑤ '△△시 시장'은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보기>는 '△△시 시장'이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 ~ ㉣에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 활용 계획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 사진 1: 주변에 버려진 냉장고의 모습
- 동영상: 행복 나눔 장터의 사람들 모습
- 사진 2: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모습
- 사진 3: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를 하는 모습
- 표: 2021년 △△시 시민들이 기증한 중고품 목록
- 사진 4: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 화면

- ① ㉠에 대한 답변에서 '사진 1'을 제시하여, 행복 나눔 장터의 운영이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전달해야겠어.
- ② ㉡에 대한 답변에서 '동영상'을 제시하여, 행복 나눔 장터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줘야겠어.
- ③ ㉢에 대한 답변에서 '사진 2'와 '사진 3'을 제시하여, 행복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언급해야겠어.
- ④ ㉣에 대한 답변에서 '표'를 제시하여, 기증 받은 중고품의 목록과 기증자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을 언급해야겠어.
- ⑤ ㉣에 대한 답변에서 '사진 4'를 제시하여, 중고품의 기증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겠어.

6. 다음은 학생이 (나)를 쓰기 전 떠올린 생각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겠어. ㉠
- 행복 나눔 장터를 직접 방문한 후의 느낀 점을 언급해야겠어. ㉡
-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 나눔 장터의 현황을 소개해야겠어. ㉢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언급해야겠어. ㉣
- 중고품 나눔 장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을 고려할 때, ㉠을 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학교가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도 함께 강조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 같아.

- ①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분명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 ②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학생들도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③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도 자원 절약의 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④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의 중학생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학교 홍보가 될 것입니다.
- ⑤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학생들은 나눔의 정신을 배울 것이고 학교는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배움터라는 이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함.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의 개념들이 뉴스에서도 언급되는 등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발자국을 ㉠ 감소시키고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이다.

그런데 탄소발자국 줄이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디지털 영역이다. 디지털 기기는 사용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 그러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화면을 켜는 행위도 그만큼 전력을 소모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니, 환경을 위해 ㉢ 조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대신에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자주 듣고 보는 음악과 영상을 미리 다운로드하는 것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끝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다. ㉣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스마트폰 한 대를 약 10년 동안 사용할 때의 양과 같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교체가 잦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므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늘리는 것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고개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눈 ㉤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일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8.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 ② 서두에 시사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③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한다.
- ④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 ⑤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글의 내용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9. <보기>는 (나)를 쓴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통계 자료

1. 스마트폰의 디지털 탄소발자국 2. 디지털 탄소발자국의 비율(%)



데이터 8.6MB 사용

=



자동차 1km 주행

CO₂ 95g 배출

구분	디지털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2013년	2.5%
2018년	3%
2020년	3.7%
2040년	14% 초과 추정

㉧. 신문 기사

○○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5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침은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 스팸 메일·쪽지 차단, 북마크 활용,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전자기기 교체 주기 늘리기 등이다.

㉨. 전문가 인터뷰 자료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가입자가 사용한 데이터는 1인당 평균 12.5GB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한 달 동안 1인당 137.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셈이 됩니다. 실제 한 대학교 연구진은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 ① ㉦-1을 활용하여, CO₂ 배출량을 자동차 주행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폰 데이터의 사용이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어.
- ② ㉦-2를 활용하여, 탄소발자국에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임을 알려야겠어.
- ③ ㉧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 ④ ㉦-1과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데이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야겠어.
- ⑤ ㉦-2와 ㉧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함을 부각해야겠어.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감소시키고’를 삭제한다.
- ② ㉡: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친다.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을 첨가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⑤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맞추며’로 고친다.

11. <보기>의 ㉠과 ㉡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 ‘축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있다.

- ① 굳히다[구치다] ② 미닫이[미다지]
- ③ 빨강다[빨가타] ④ 숨이불[숨니불]
- ⑤ 잡히다[자피다]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홑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겹문장은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다시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문법 단위로는 ‘절’에 해당하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명사절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은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체언 앞에 위치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절은 ‘나는 국어가 좋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용절은 ‘담당자가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라고 말했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화자의 생각 혹은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경우로, ‘고’, ‘라고’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절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나뉜다.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절과 뒤 절이 ‘-고’, ‘-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각각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앞절과 뒤 절이 ‘-아서/-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앞절이 뒤 절에 대해 각각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며 ㉢ 곧장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 기분 좋게 약속해서 나는 ㉤ 마음이 설렘다.

- ① ㉠은 뒤에 오는 명사 ‘친구’를 수식하므로 관형절로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군.
- ② ㉡은 서술어 ‘알리며’의 부사어 역할을 하므로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군.
- ③ ㉢은 ‘고’를 사용하여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인용절로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군.
- ④ ㉣은 서술어 ‘약속해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절로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군.
- ⑤ ㉤은 주어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술절로 안긴문장으로 볼 수 있군.

13. 윗글을 바탕으로 이어진문장을 구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예문	종류	의미 관계
① 무쇠도 가면 바늘이 된다.	종속	목적
②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대등	대조
③ 나는 시험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다.	종속	조건
④ 함박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대등	나열
⑤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놀랐다.	종속	원인

1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 지훈이가 야구공을 멀리 던졌다.
 ㉡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
 ㉢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
 ㉣ 날씨가 더우니 하복을 입어라.
 ㉤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

※ ‘*’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나타냄.

- ① ㉠의 ‘던졌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② ㉡의 ‘밝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 ③ ㉢의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 ④ ㉣의 ‘입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 ⑤ ㉤의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과 ㉡의 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다의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가리킨다. 다의어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날아가는 새를 보다’에서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 형태를 알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보다’에서 ‘보다’는 ‘진찰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
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자.	회의를 열어 그를 회장으로 추천하자.
②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연습했다.	국이 매워서 많이 먹지 못하겠다.
③	미리 숙소를 잡고 여행지로 출발했다.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를 잡았다.
④	그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총무과로 갔다.	그는 아침 일찍 일터로 갔다.
⑤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	학교에서 버스정류장까지가 매우 멀었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 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포만 중추’가 함께 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뇌 안의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 침의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된다.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 중추나 포만 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을 흐르는 영양소인데,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다. 먼저 탄수화물은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肝)으로 운반된다.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이와 같은 식욕은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 연합 영역’에서 조절되는데, 본래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곳에서는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하는데, 전두 연합 영역의 지령은 신경 세포의 신호를 통해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전해진다.

한편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서는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위(胃) 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胃)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 세포에 작용해서, 위(胃)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 있다. 그래서 식

사가 끝난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 시상 하부: 사람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신체 시스템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뇌의 영역.
* 중추: 신경 기관 가운데, 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부분.

1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욕의 작용 원리
- 식욕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을 중심으로
- ② 식욕의 개념과 특성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을 중심으로
- ③ 식욕이 생기는 이유
- 탄수화물과 지방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 ④ 전두 연합 영역의 특성
- 디저트의 섭취와 소화 과정을 중심으로
- ⑤ 전두 연합 영역의 여러 기능
- 포도당과 지방산의 작용 관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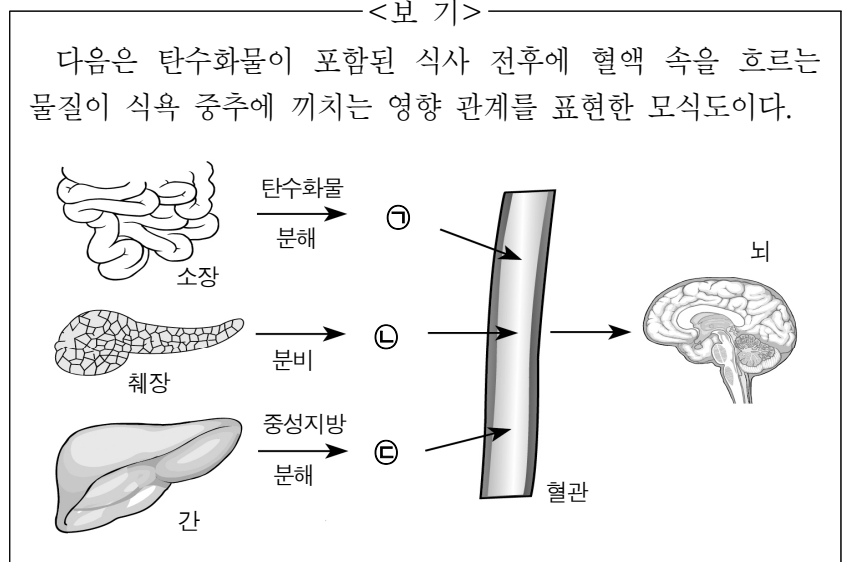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다.
- ② 인간의 뇌에 있는 시상 하부는 인간의 식욕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위(胃)의 운동에 관여하는 오렉신은 전두 연합 영역에서 분비된다.
- ④ 음식의 특정한 맛에 질렸을 때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⑤ 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관여한다.

18. ㉠와 ‘식욕 중추의 작용’을 고려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는 타당하다.
- ② 섭식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③ 포만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④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는 모순적이다.
- ⑤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복되므로 ㉡는 타당하다.

19.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관 속에 ㉠의 양이 줄어들면 ㉡이 분비된다.
- ② 혈관 속에 ㉠과 ㉡의 양이 많아지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다.
- ③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과 ㉢은 시상 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한다.
- ④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에 ㉠의 양은 줄어들고 ㉢의 양은 늘어난다.
- ⑤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은 ㉢의 도움으로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뷔페에서 음식을 먹은 후)

A: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B: 나도 배가 부르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좀 더 먹어야겠어.

(잠시 후 디저트를 둘러보며)

A: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 먹어 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 오늘도 먹어 볼까?
B: 너 조금 전에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A: 후식 먹을 배는 따로 있다는 말도 못 들어 봤어?
B: 와! 그게 또 들어가? 진짜 대단하다. 나는 입맛에는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 녹차나 마셔야겠어.

- ①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胃)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마련되었겠군.
- ② A는 섭식 중추의 작용으로 뷔페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었겠군.
- ③ B는 영양분의 섭취와는 무관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겠군.
- ④ B는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으로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녹차를 마셨겠군.
- ⑤ A와 B는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섭식 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겠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희(朱熹)의 주자학을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주희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 주었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설명하였다.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다. 꿩은 산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벼는 물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으로,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으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유 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 ‘서(恕)’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를 용서(容恕)와 추서(推恕)로 구분하고, 추서를 특히 강조하였다.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줌’을 의미하고, 추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함’을 의미한다.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는 용서이고, 내가 아우의 존중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추서인 것이다. 그런데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관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는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타당성 여부를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④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대비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희는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② 주희는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은 주희의 관점으로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기호이다.
- ② ㉡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닌다.
- ④ ㉡은 ㉠과 달리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이다.
- ⑤ ㉠과 ㉡은 모두 타인의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와 직결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급에서 복도 청소를 맡은 학생 A와 B가 있었다. A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았고, B는 항상 성실히 청소를 하였다. 복도가 깨끗한 것을 본 선생님이 복도 청소 담당인 두 학생을 모두 칭찬하였는데, 이때 A는 자신이 B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B는 A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열심히 청소하였고 A는 그러한 B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후, A는 B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으며, 책임감을 갖고 청소하였다.

- ① 주희는 거짓말을 한 것과 무관하게 A에게는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 있다고 보겠군.
- ② 주희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는 A와 항상 성실히 청소하는 B의 기질이 서로 다르다고 보겠군.
- ③ 정약용은 A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게 된 것이 A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보겠군.
- ④ 정약용은 A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겠군.
- ⑤ 정약용은 B가 추서로 A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었다고 보겠군.

25.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명확한 증거를 들었다.
- ② 감기가 들어 약을 먹었다.
- ③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 ④ 우리 집은 햇볕이 잘 든다.
- ⑤ 상자 안에 선물이 들어 있다.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톡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구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아버지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애?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싹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어서 어떤 텐 홰옷이야. 암만해두 사쓸 한 벌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 오다 한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릴라구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셔츠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 하였다.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닢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테만 오류 원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렵도 없었다. 50전 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출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짹짹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 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A]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나오.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이문 왜 안경다리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긴요성을 날로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었다.

(중략)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 초시라 출자(出資)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슬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3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다.

“서 참위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깻 놈이 천생 가궤*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 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㉞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꽤 나오는 노임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라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 초시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천 원 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龍塘浦)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㉞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치었다.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 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 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 이태준, 「복덕방」 -

- * 마코: 일제 강점기 때의 담배 이름.
- * 청장: 장부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 * 금시발복: 어떤 일을 한 다음 이내 복이 돌아와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
- * 가괘: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 * 축항: 항구를 구축함. 또는 그 항구.
- * 옥양목: 빛이 짙고 희고 얇은 무명의 한 가지.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고, [B]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는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B]는 작품 밖 서술자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측하고 있다.
- ④ [A]는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⑤ [A]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7. ㉠ ~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형편이 어려운 안 초시를 인색하게 대하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는 안 초시의 자존심이 드러나 있다.
- ③ ㉢: 안 초시가 전해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안 초시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려는 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㉞: 예상 밖의 결과로 딸과 마주할 자신이 없는 안 초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8. 다음은 윗글이 창작될 당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일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은 지금...

일본의 축항 사업 발표 후,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한탕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황금광 사업으로 불리는 축항 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1932년 8월,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는 철도의 종착지이자 축항지로 나진 이 결정되자,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들로 나진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잘못된 소문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①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 안 초시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하였겠군.
- ② 안 초시가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며 부추기는 모습에서 한탕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안 초시의 딸이 ‘연구소 집’을 담보로 ‘3천 원’을 마련한 것은 당시의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모씨가 ‘축항 후보지’에 대해 ‘연극’을 꾸민 것은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⑤ 안 초시가 ‘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어두운 모습을 엿볼 수 있군.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보 마누라, 슬퍼 마오.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들 어찌하시겠소?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홍부 아내 이 말에 순종하여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하였다. 홍부 아내는 방아 찧기, 술집의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대사 치르는 집 그릇 닦기, 굿하는 집의 떡 만들기, 얼음이 풀릴 때면 나물 캐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홍부는 이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 전답의 무논 갈기,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영 엮기 등 이렇게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그러나 역시 살기는 막연하였다.

(중략)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 것이었다. 홍부 아내가 명주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홍부는 얼른 받아 제비 새끼의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 매어 찬 이슬에 엮어 두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리하여 십여 일이 지나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재잘거리며 울고 동덩실 떠서 날아갈 때 소상강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비가 강남 수천 리를 훨훨 날아가서 제비 왕을 뵈러 가니 제비 왕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다리를 절며 들어오느냐?”

“신의 부모가 조선국에 나가 홍부의 집에 갇혔는데 뜻밖에 큰 구렁이의 화를 입어 다리가 부러져 죽을 것을 홍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홍부의 가난을 면케 해주신다면 소신은 그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홍부는 과연 어진 사람이다. 공 있는 자에게 보은함은 군자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 아니 갚으랴? 내가 박씨 하나를 줄 테니 경은 가지고 나가 은혜를 갚도록 하라.”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 나와서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춘삼월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빠 날아 홍부네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거동은 마치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색구름 사이로 넘는 듯, 단산의 어린 봉이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니는 듯, 황금 같은 피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버들 사이를 오가는 듯하였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넘노는 거동을 홍부 아내가 먼저 보고 반긴다.

“여보, 아이 아버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토록 넘놀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오.”

홍부가 나와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애다 떨어뜨린다. 집어 보니 한가운데 ‘보은(報恩)박’이란 글 석 자가 쓰인 박씨였다.

그것을 울타리 밑에 터를 닦고 심었더니 이삼일에 싹이 나고, 사오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줄기마다 꽃이 피어 박 네 통이 열린 것이다.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영근 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저 먹자하고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굿고서 홍부 내외는 톱을 마주 잡고 켜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켜서 톱 타 놓으니 오색 채운이 서리며 청의동자 한 쌍이 나오는 것이었다.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

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 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라고 말하며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박 한 통을 또 따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쓱삭 쿡각 톱 타 놓으니 속에서 온갖 세간불이가 나왔다.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톱 타 놓으니 순금 궤가 하나 나왔다. 금거북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 보니 황금, 백금, 밀화,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향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다시 한 통을 톱 타 놓으니 일등 목수들과 각종 곡식이 나왔다. 그 목수들은 우선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그다음 또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이 나오며 온갖 것을 여기저기 다 쌓고 법석이니 홍부 내외는 좋아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이리하여 홍부는 좋은 집에서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놀부 귀에 들어가니,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가서 옥대기면* 반재산을 뺏어 낼 것이다.”

벼락같이 건너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한참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마침 출타 중이던 홍부가 들어왔다.

“네 이놈,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형님 그 말씀이 웬 말씀이요?”

홍부가 앞뒷일을 자세히 말하자, 그럼 네 집 구경을 자세히 하자고 놀부가 나섰다.

홍부는 형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키는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홍부가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스스로 짚어지고 가서 집에 이르니 놀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고 그 출처와 홍부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게 되자,

“우리도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났으면 그 아니 좋겠소?” 라며, 그해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렸다.

- 작자 미상, 「홍부전」 -

* 옥대기면: 난폭하게 욕박질러 협박하면.
* 화초장: 문짝에 유리를 붙이고 화초 무늬를 채색한 옷장.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결과를 나열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전기(傳奇)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을 교차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 ② 박에서 나온 묵수들은 흥부 부부를 위해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주었다.
- ③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 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매우 반겼다.
- ④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 왕에게 말하며 흥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를 원하였다.
- ⑤ 놀부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잦은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창작된 「흥부전」은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백성들은 성품이 착한 흥부 내외가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착한 흥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환상성(幻想性)을 띠고 있다는 점은 가난이 실제 현실에서는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① 흥부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던 것은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 ② 흥부 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짚어지고’ 간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비 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 흥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흥부가 타는 박 속에서 ‘세간불이’와 ‘각종 곡식’이 나온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백성들의 소망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사오일’ 만에 열린 박에서 ‘순금 껌’이 나와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흥부에게 주어진 보상이 환상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2. 윗글의 놀부를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인물이군.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물이군.
- ③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인물이군.
- ④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인물이군.
- 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않는 인물이군.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① 민감하면 탄력적이라 하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체재의 존재 여부이다. 어떤 상품에 ㉠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밀접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버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반면에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둘째, 필요성의 정도이다. 필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사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필수재인 휴지의 가격이 오르면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치재인 보석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감소한다. 셋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right| = \left| \frac{\text{수요량 변화분/기존 수요량}}{\text{가격 변화분/기존 가격}} \right|$$

[A]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하자. 이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의 2배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총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 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하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했다면, 이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때 총수입은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이므로 가격 인상 전 50,000원에서 인상 후 54,000원으로 4,000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 산출 방법
- ③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산출 방법
- ④ 대체재의 유무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

3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갑국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이고,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 수단인 을국은 자동차가 주요 이동 수단인 나라에 비해 자동차를 (㉡)로 인식하여 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이다.

- | | | | |
|---|------|-----|------|
| | ㉠ | ㉡ | ㉢ |
| ① | 비탄력적 | 사치재 | 비탄력적 |
| ② | 비탄력적 | 사치재 | 탄력적 |
| ③ | 비탄력적 | 필수재 | 탄력적 |
| ④ | 탄력적 | 사치재 | 비탄력적 |
| ⑤ | 탄력적 | 필수재 | 탄력적 |

3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소비자의 소득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판매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 상품의 생산 단가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자의 총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판매자의 판매 수입과 소비자의 지출액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36. <보기>는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 인상 이후 하루 동안의 수요량 감소를 나타낸 표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구분	김밥	영화 관람권
기존 가격	2,000원	10,000원
가격 변화분	500원	2,000원
기존 수요량	100개	2,500장
수요량 변화분	20개	1,000장

※ 단,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다.
- ②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 ③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두 1보다 작다.
- ④ 김밥과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 ⑤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3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음.
- ②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
- ③ ㉢: 변화의 움직임 따위가 급하고 격렬함.
- ④ ㉣: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함.
- ⑤ ㉤: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나)

서산의 아침별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에 더 질었든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바라기 역고* 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잡초 짙은 긴 사래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쫓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홀리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 나물이라
내 밥 많을세라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 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들소나 <제5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넷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제6수>

- 위백규, 「농가구장(農歌九章)」 -

* 둘러내자: 휘감아서 뽑자.

* 바라기 역고: 잡초의 일종.

* 우배초적: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풀피리 소리.

(다)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그 열매는 맛이 없었다. 가지에도 부스럼이 돋고 잔가지는 무더기로 자라 참으로 볼 것이 없었다. 지난 봄에 이웃에 박 씨 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어 흥도 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하였다. 애초에 한창 잘 자라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잔가지 하나를 접붙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 나 자라고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 눈이 뜨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다.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서로 어우러진 듯하니 그 경치가 진실로 볼 만하였다.

오호라,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는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

내가 여기에 이르러 느낀 바가 있었다.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오, 내 몸을 돌이켜 본다 하여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리는 일은 나무의 옛 가지를 잘라 내버리듯 하고 **착한 마음**의 실마리 싹을 끊임없이 움터 나오게 하기를 새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닦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역』에 이르기를 ①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승괘(升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 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뀐 것뿐인데 한 치 가지를 손으로 싸매어 놓은 것이 저토록 지붕 위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기 그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그 마음 씀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보면 또한 어찌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리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다 이 늙은이를 경계함이 있으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기노라.

- 한백겸, 「접목설(接木說)」 -

* 승괘: 육십사괘의 하나. 땅에 나무가 자라남을 상징함.

3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39. (나)를 활용하여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시를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② <제3수>는 농부들이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③ <제4수>는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④ <제5수>는 농부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⑤ <제6수>는 해 질 무렵에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는 않다. (가)에서의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자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나)에서의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자 건강한 노동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 ① (가)의 '초려삼간'은 화자가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들', '청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나)의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화자가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의 '보리밥'과 '콩잎 나물'은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의 화자가 '호미 메고 돌아올' 때에 듣는 '우배초적'에서 농부들의 흥취를 느낄 수 있군.

41. (다)의 글쓴이가 ㉠을 인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 ② 자신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 ③ 자신의 지식이 보잘것없음을 성찰하기 위해
- ④ 자신과 군자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 ⑤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를 지난날과 비교하기 위해

42. 다음은 학생이 (다)를 읽고 정리한 메모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목설(接木說)

㉠ 글쓴이는 '빛깔이 시원치 않'은 꽃과 '부스럼이 돋'은 가지가 달린 복숭아나무를 소재로 글을 썼다.

㉡ 글쓴이는 이웃에 사는 박 씨의 도움으로 '홍도 가지'를 접붙인 후 자라난 꽃과 열매를 본 경험을 제시하였다.

㉢ 글쓴이는 사물이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글쓴이는 사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사람들이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자라게 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 글쓴이는 '늪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권하고 싶어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

(나)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
 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종길 시인의 작품에 가족에 대한 시가 많은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그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깊다. 「성탄제」에도 삼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애가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애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됨으로써 공감대를 얻고 있다.

- 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은 시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 ② ‘눈 속’을 해치고 ‘약’을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은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겠군.
-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겠군.
- ④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